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Rejecting-Neglecting Style of Parenting

박남심¹ 송승민² 박보경³ 김정은⁴ 변유정⁵

Nam-Shim Park¹ Seung-Min Song² Bokyung Park³ Jung-Eun Kim⁴ Yu-Jung Byun⁵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of mothers with 3 to 5 year-old children and rejecting-neglecting parenting style.

Methods: Three hundred and twenty-eight mothers answered questionnaires on three research variables. To analyze the data,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Results: First, mothers'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and rejecting-neglecting parenting style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respectively. Specifically, mothers with a high level of depression were more addicted to smartphones and exhibited more rejecting-neglecting style of parenting. Also, mothers who were more obsessed with smartphones showed more rejecting-neglecting parenting style. Second, this study found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rejecting-neglecting parenting style.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confirmed that mothers' depression and smartphone overuse had an influence on their negative parenting behavi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ddress the need of various interventions for mothers to decrease their depression and smartphone overuse.

key words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rejecting-neglecting style of parenting

¹ 제1저자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박사과정

² 교신저자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부교수
(e-mail : smsong@suwon.ac.kr)

³ 공동저자

경민대학교 아동보육과 조교수

⁴ 공동저자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객원교수

⁵ 공동저자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박사과정

I. 서론

미국정신의학회의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에서 우울은 슬프고 침울한 정서 상태를 의미하며, 이와 더불어 의욕 없음, 무가치함, 집중력 저하, 식욕 감퇴, 체중 변화 등과 같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변화와 자살 충동 및 시도를 수반하는

증상으로 정의된다(Wenar & Kerig, 2011).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한국 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간 한국 성인 여성의 우울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우울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순 등, 2014). 여성의 우울 증상은 연령 증가, 폐경, 만성질환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나 배우자 유무, 사별, 부부폭력,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남순 등, 2014). 이 외에, 자녀의 출산과 양육도 여성의 우울에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임, 2017; 김율리, 2007).

일반적으로 우울한 사람은 불안이나 분노를 더 많이 지각하고(조현주 등, 2007), 무력감(최미경, 이영희, 2010), 낮은 자존감(김혜미, 2014), 수면문제(변영순, 정은주, 1999) 등을 경험하며, 심각할 경우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박영희, 2017). 또한, 우울 수준이 높은 사람은 두통, 목통증, 관절염 등과 같은 만성적인 신체질환 증상을 나타내거나(Tsang et al., 2008),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이충경 등, 2001). 이처럼 우울은 신체질환이나 정신질환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인지 편향이나 부정적 정서조절과도 관련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우울한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으며(권호인, 권정혜, 2012),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하였을 때 스스로를 탓하며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 돌리거나 상황의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하여 지각하는 것과 같이 부정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성향을 보인다(조현주 등, 2007). 이로 인해 우울 수준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아동의 발달단계 중 유아기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는 내면에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 작업 모델을 형성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유아로 하여금 어머니의 다음 긍정적인 행동을 예측케 하여 안정적인 심리사회적 발달을 가져오게 된다(Bowlby, 1988). 하지만 우울을 경험하는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Misri et al., 2010), 이로 인해 자녀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의 주체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강력한 위험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며(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이는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정은, 2016;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정미경, 김영희, 2003). 이에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머니의 우울은 낮은 온정, 수용과 애정(김명숙, 오현숙, 2015; 도현심 등, 2014; 이용란, 2013), 거부(김명숙, 오현숙, 2015; 도현심 등, 2014; 이용란, 2013), 냉담과 무시(김명숙, 오현숙, 2015), 방임(김정은, 2016), 통제(정미경, 김영희, 2003), 신체적 체벌(Shin & Stein, 2008) 등과 같은 양육행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Lovejoy 등(200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반해, 부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정적 양육행동 가운데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하여 자녀를 거부하거나 방임하는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해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은 거부 및 제재적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도현심 등, 2014),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 및 제재적 양육행동 간의 정적 관련성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밝혀졌다(김명숙, 오현숙, 2015; 이용란, 2013).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우울은 정서적 민감성을 저하시키고 무기력함, 짜증스러움, 깊은 슬픔 등의 증상을 발현케 함으로써, 자녀에게 거부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유아기 자녀를 둔 우울한 어머니는 방임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였으며(김정은, 2016; 윤혜미, 최문정, 2006),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 역시 자녀에게 냉담하고 무시하는 양육태도와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김명숙, 오현숙, 2015). 즉,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정서적으로 둔감해지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무관심한 방임적 양육을 보이기 쉬울 것이다. 이처럼 어머니의 우울은 거부적 또는 방임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머니의 우울은 거부나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최근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매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리라 예측된다. 이는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에 근거한다. 먼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경향이 더 많았다(정그린, 2016). 정그린(2016)의 연구 외에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으며,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대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성인 초기에 속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병년, 2013; 양경미, 2016; Toda, Nishio, & Takeshita, 2015). 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요인들을 고려한 선행 연구들에서 여대생의 우울은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 등과 같은 스마트폰 의존성과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며(최희정, 유장학, 2016), 남녀 대학생의 우울은 내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등과 같은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주아, 2016).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울한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통해 현실에서 얻지 못하는 만족감을 얻고자 이에 더욱 몰두하고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도 보고되는데, 구체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병적몰입, 생활장애, 통제상실, 강박증상 등과 같은 스마트폰 중독은 거부-방임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이주연, 장성예, 2014),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어머니는 유아기 자녀에게 거부적 양육태도를 보다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여옥, 2015). 뿐만 아니라 3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들 또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보이며 애정성이나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과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

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혜, 2013).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실정이나, 이에 대해 다룬 몇몇 선행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어머니가 자녀를 거부하거나 방임하는 등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김정은, 2016; 도현심 등, 2014), 어머니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정그린, 2016),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과 거부-방임 양육행동(이주연, 장성예, 2014) 간의 각각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수행되었으나, 이 세 변인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세 변인 각각의 관련성에 근거하였을 때,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우울,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및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각각의 관계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세 변인 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 때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과 관련하여 Griffiths (2005)가 제안한 행동중독의 6가지 하위요인들, 즉 현저성, 기분조절, 내성, 금단, 갈등, 재발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이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각 하위요인들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안주아, 2016; 장여옥, 2015; 최희정, 유장학, 2016)은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이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우울이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자녀양육에 유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우울,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및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은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화성, 안성, 안양 등 경기도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328)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어머니 연령			자녀 성별		
30세 미만	8	2.4	남	173	52.7
30~34세	59	18.0	여	153	46.3
35~39세	175	53.4	무응답	3	0.9
40~44세	70	21.3	자녀 연령		
45세 이상	12	3.7	만 3세	66	20.1
무응답	4	1.2	만 4세	128	39.0
어머니 교육수준			만 5세	126	38.4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	85	25.9	무응답	8	2.4
전문대 졸업 혹은 대학교 중퇴	82	25.0	어머니 직업		
대학교 졸업	127	38.7	전업주부	139	42.4
대학원 이상	30	9.1	일일 노동자	5	1.5
무응답	4	1.2	생산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	24	7.3
자녀수			자영업, 일반 판매 종사자	12	3.7
1명	72	22.0	사무직 및 보안업무 종사자	20	6.1
2명	181	55.2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교사	65	19.8
3명	65	19.8	전문직	33	10.1
4명 이상	9	2.7	기업체 간부, 정부고위공무원	2	0.6
무응답	1	0.3	기타	15	4.6
			무응답	13	4.0

3~5세 유아의 어머니 3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연령은 35~39세가 175명(53.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40~44세가 70명(21.3%)으로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127명(38.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이 85명(25.9%)으로 많았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139명(42.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및 교사가 65명(19.8%), 의사,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 33명(10.1%) 순이었다.

2. 연구도구

1) 우울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신승철 등(1991)의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 Radloff, 1977)을 한국인에게 적용한 척도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우울감정(5문항)은 ‘외로움을 느꼈다’,

‘울었던 적이 있었다’ 등이, 긍정적 감정(4문항)은 ‘나는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행복한 편이었다’ 등이,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5문항)은 ‘입맛이 없었다’, ‘잠을 시원하게 못 잤다’ 등이, 대인관계(2문항)는 ‘사람들이 다정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을 ‘거의 그렇지 않았다(1일 미만)(1점)’, ‘가끔 그랬다(1~2일)(2점)’, ‘자주 그랬다(3~4일)(3점)’, ‘대부분 그랬다(5~7일)(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긍정적 감정에 대한 문항들을 역산 처리하여 우울의 총점을 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어머니의 우울의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2)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종환, 임종민, 손한백, 박호완 그리고 장문선(2016)의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Griffiths(2005)가 제안한 현저성, 기분조절, 내성, 금단, 갈등, 재발의 6가지 요소를 기초로 개발된 척도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현저성(4문항)은 스마트폰이 개인의 사고, 감정 및 행동을 전반적으로 지배할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스마트폰이 없다면 내 인생에 재미있는 일이란 없다’, ‘나는 지금 몹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기분조절(4문항)은 스마트폰을 하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을 의미하며, ‘나는 단지 기분전환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 적이 있다’,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내성(4문항)은 이전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는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스마트폰에 점점 더 중독되는 내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금단(4문항)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빈도가 감소하면 심리적 변화나 신체적 반응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갈등(4문항)은 스마트폰에 몰두함으로써 대인관계나 학업 및 직업, 사회적 활동 등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나는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나 업무능률이 떨어진다’, ‘나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재발(4문항)은 스마트폰의 사용 양상이 이전 중독 시의 양상으로 반복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나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나는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원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각 하위요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Cronbach's α 는 현저성이 .73, 기분조절이 .79, 내성이 .78, 금단이 .75, 갈등이 .76, 재발이 .75이었다.

3) 거부-방임 양육행동

어머니의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박주희(2001)의 양육행동 척도 가운데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나는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화를 낸다’, ‘나는 아이가 혼자서 놀게 내버려둔다’ 등이 포함된다. 원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정도가 보다 잘 드러나도록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에게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냄을 의미하며, 어머니의 거부-방임 양육행동의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2016년 10월 1일~10월 31일에 서울과 화성, 안성, 안양 등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6곳과 유치원 2곳의 원장에게 연구자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원장의 승인 하에 설문지를 각 가정으로 배포하였다. 만 3~5세 유아의 어머니가 연구의 취지에 대해 읽고 동의서에 서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36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9부와 어머니 외 다른 가족구성원이 응답한 31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28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및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Durbin-Watson 계수는 2에 근접하여 잔차 간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으며,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는 각각 10이하와 0.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우울,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및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

어머니의 우울,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및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표 2>). 먼저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

〈표 2〉 어머니의 우울,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및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N = 328)

구분	1	2	3	4	5	6	7	8
1. 우울	1.00							
2. 현저성	.26***	1.00						
3. 기분조절	.13*	.57***	1.00					
4. 내성	.16**	.64***	.59***	1.00				
5. 금단	.23***	.67***	.54***	.73***	1.00			
6. 갈등	.19***	.71***	.59***	.73***	.68***	1.00		
7. 재발	.10	.64***	.53***	.73***	.66***	.75***	1.00	
8. 거부-방임 양육행동	.31***	.19***	.28***	.23***	.29***	.29***	.24***	1.00

* $p < .05$, ** $p < .01$, *** $p < .001$.

주. 2.현저성, 3.기분조절, 4.내성, 5.금단, 6.갈등, 7.재발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하위요인임.

를 살펴보면, 우울은 거부-방임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r = .31, p < .001$)을 나타내었다. 즉, 우울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하위요인들 중 현저성($r = .26, p < .001$), 기분조절($r = .13, p < .05$), 내성($r = .16, p < .01$), 금단($r = .23, p < .001$), 갈등($r = .19,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우울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들은 스마트폰이 개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생활을 지배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기분을 전환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스마트폰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견디기 힘들며,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서 갈등을 경험하거나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더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하위요인들인 현저성($r = .19, p < .001$), 기분조절($r = .28, p < .001$), 내성($r = .23, p < .001$), 금단($r = .29, p < .001$), 갈등($r = .29, p < .001$), 재발($r = .24, p < .001$)은 거부-방임 양육행동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스마트폰이 개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기분전환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며,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스마트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것과 같이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보이는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2.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매개적 역할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세 단계 접근 모델을 실시하였다(<표 3>). 첫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각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각 하위요인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우울은 이전 단계에 비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거나(부분매개) 사라지는지(완전매개)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세 단계 접근 모델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 매개변인 및 종속변인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하위요인 중 재발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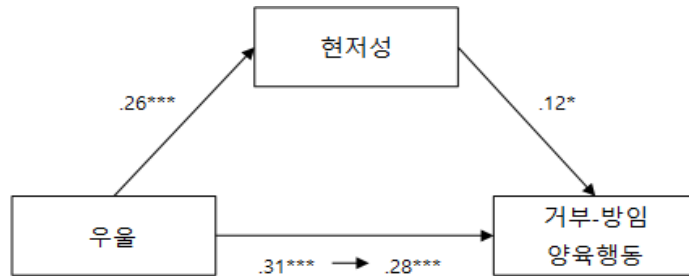
1)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현저성의 매개적 역할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현저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그림 1]).

<표 3>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매개적 역할 (N = 328)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B(SE)	β	F	R ²	z
1	우울	→ 현저성	.18(.03)	.26***	24.24***	.07	1.97*
2	우울	→ 거부-방임 양육행동	.20(.03)	.31***	34.81***	.10	
3	우울	→ 거부-방임 양육행동	.17(.03)	.28***	20.10***	.11	
	현저성		.11(.05)	.12*			
1	우울	→ 기분조절	.12(.05)	.13*	5.80*	.02	2.09*
2	우울	→ 거부-방임 양육행동	.20(.03)	.31***	34.81***	.10	
3	우울	→ 거부-방임 양육행동	.18(.03)	.28***	29.40***	.15	
	기분조절		.17(.04)	.24***			
1	우울	→ 내성	.16(.05)	.16**	8.91**	.03	2.19*
2	우울	→ 거부-방임 양육행동	.20(.03)	.31***	34.81***	.10	
3	우울	→ 거부-방임 양육행동	.18(.03)	.28***	23.83***	.13	
	내성		.15(.04)	.18**			
1	우울	→ 금단	.20(.05)	.23***	17.97***	.05	2.91**
2	우울	→ 거부-방임 양육행동	.20(.03)	.31***	34.81***	.10	
3	우울	→ 거부-방임 양육행동	.17(.03)	.26***	28.40***	.15	
	금단		.17(.04)	.24***			
1	우울	→ 갈등	.16(.05)	.19***	12.65***	.04	2.65**
2	우울	→ 거부-방임 양육행동	.20(.03)	.31***	34.81***	.10	
3	우울	→ 거부-방임 양육행동	.17(.03)	.27***	28.91***	.15	
	갈등		.19(.04)	.24***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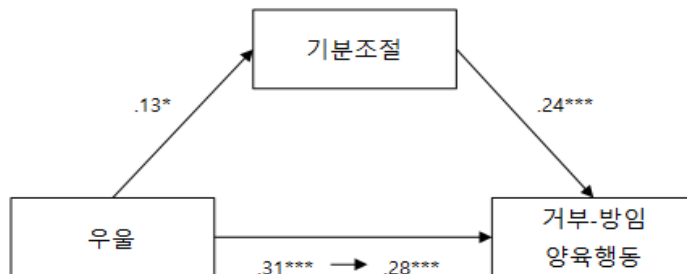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현재성의 매개적 역할

* $p < .05$. *** $p < .001$.

첫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현재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6,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31, p < .001$). 세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현재성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12, p < .05$), 어머니의 우울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 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beta = .31, p < .001 \rightarrow \beta = .28, p < .001$).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값이 절대값 1.96보다 크게 나타나($z = 1.97, p < .05$),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현재성의 부분매개 역할이 확인되었다. 즉, 우울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우울한 어머니는 스마트폰이 어머니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어머니의 생활을 지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녀에게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이어졌다.

2)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기분조절의 매개적 역할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기분조절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림 2]). 첫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기분조절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13, p < .05$), 두 번째 단계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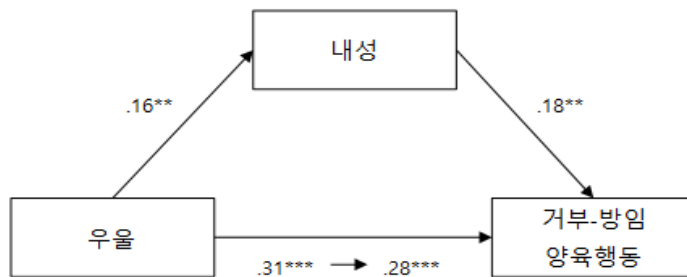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기분조절의 매개적 역할

* $p < .05$, *** $p < .001$.

향을 미쳤다($\beta = .31, p < .001$). 세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기분조절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4, p < .001$), 어머니의 우울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 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beta = .31, p < .001 \rightarrow \beta = .28, p < .001$).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절대값 1.96보다 크게 나타나($z = 2.09, p < .05$),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기분조절의 부분매개 역할이 확인되었다. 즉, 우울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우울한 어머니는 기분전환이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을 보다 많이 사용하였으며, 이는 자녀에게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3)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내성의 매개적 역할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내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그림 3]). 첫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내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16, p < .01$), 두 번째 단계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31, p < .001$). 세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내성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18, p < .01$), 어머니의 우울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 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beta = .31, p < .001 \rightarrow \beta = .28, p < .001$).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절대값 1.96보다 크게 나타나($z = 2.19, p < .05$),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내성의 부분매개 역할이 확인되었다. 즉, 우울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또한, 우울한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게 됨으로써 자녀에게는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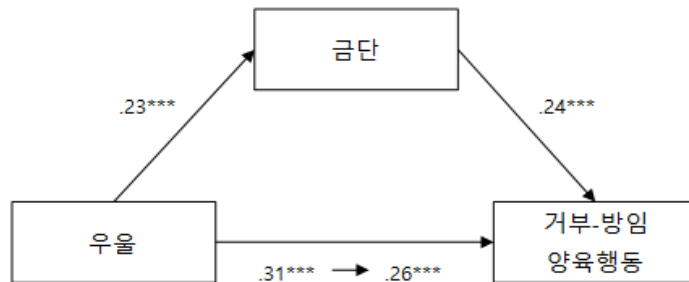
[그림 3]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내성의 매개적 역할

** $p < .01$, *** $p < .001$.

4)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금단의 매개적 역할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금단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그림 4]). 첫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금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3,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31,$

$p < .001$). 세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금단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4, p < .001$), 어머니의 우울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 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beta = .31, p < .001 \rightarrow \beta = .26, p < .001$).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값이 절대값 1.96보다 크게 나타나($z = 2.91, p < .01$),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금단의 부분매개 역할이 확인되었다. 즉, 우울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우울한 어머니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이를 견디기 힘들어하였으며 이는 자녀에게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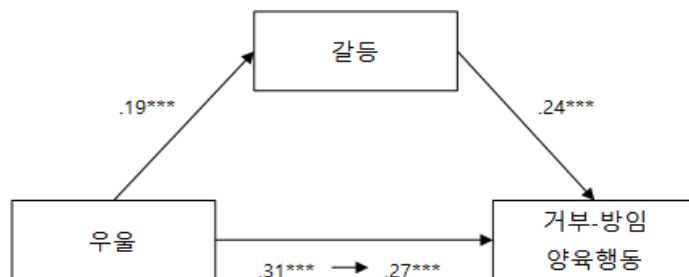


[그림 4]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금단의 매개적 역할

*** $p < .001$.

5)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갈등의 매개적 역할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갈등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았다([그림 5]). 첫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갈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19,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31, p < .001$). 세 번째 단계에서 어머니의 갈등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4, p < .001$), 어머니의 우울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 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beta = .31, p < .001 \rightarrow \beta = .27, p < .001$).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값이 절대값 1.96



[그림 5]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갈등의 매개적 역할

*** $p < .001$.

보다 크게 나타나($z = 2.65, p < .01$),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갈등의 부분매개 역할이 확인 되었다. 즉, 우울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더 나타내었다. 또한, 우울한 어머니는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서 문제를 경험하거나 시력감퇴, 손목 및 손가락 통증, 목덜미 통증 등의 신체적 불편함을 느꼈으며, 이는 자녀에게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이어졌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및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우울은 거부-방임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이 나타나, 어머니가 자신의 우울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양육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자녀가 조금만 잘못해도 쉽게 화를 내며 자녀를 혼자 놀게 내버려두는 것과 같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덜 온정·수용적이며 더 거부·제재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김정은, 2016; 도현심 등, 2014; 윤희미, 최문정, 2006)과 일치한다. 즉,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로 인해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비합리적인 신념 및 왜곡된 지각으로 인해 자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거부적으로 대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기 쉬울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우울이 거부나 방임 등 부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자녀의 문제행동을 야기한다는 연구결과들(도현심 등, 2014; 윤희미, 최문정, 2006)로 미루어볼 때, 어머니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하여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 중재적 접근과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치료적 접근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우울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10~42%가 경험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어머니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이므로(McCue Horowitz, Briggs-Gowan, Storfer-Isser, & Cater, 2007), 자녀를 출산하기 전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부부가 함께 산후우울증과 같은 정서적 변화에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도울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의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부모교육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및 관리하며,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문의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전화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하위요인들인 현저성, 기분조절, 내성, 금단 및 갈등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하고(현저성), 스마트폰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기분조절),

점차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내성),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뿐만 아니라(금단)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해 가족관계나 사회적 활동에서 갈등을 경험하였다(갈등). 이와 같은 어머니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간의 정적 관련성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을 일으킨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정그린, 2016)와 일치한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같이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하위요인들을 고려한 선행 연구결과들과도 일맥상통한다. 구체적으로, 여대생의 우울은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 등과 같은 스마트폰 의존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최희정, 유장학, 2016), 남녀 대학생의 우울은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등과 같은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안주아, 2016). 뿐만 아니라, 우울하거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인터넷 중독이나 인터넷 쇼핑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김경남, 2009; 박진아, 이경숙, 전연진, 2014)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우울한 어머니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또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이전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되어 소속감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이를 대신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몰입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정확한 양육지식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스마트폰 중독군에 속할 위험이 낮았다는 연구결과(서혜성, 김연하, 2014)에 근거할 때,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 스마트폰 중독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 자녀양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셋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하위요인들인 현저성, 기분조절, 내성, 금단, 갈등 및 재발은 거부-방임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이 어머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현저성), 기분을 전환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기분조절), 스마트폰의 사용이 습관화되고(내성), 스마트폰이 없으면 초조함이나 불안을 느끼며(금단),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대인관계나 사회활동에서 갈등을 경험하고(갈등), 스마트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것(재발)과 같이 높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보이는 어머니는 자녀를 혼자서 놀게 내버려두거나 자녀에게 화를 내고 거부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하위요인들 중 내성, 금단 및 갈등이 거부-방임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본 연구결과는 내성, 금단 및 일상생활장애와 같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거부적 양육태도 간의 정적 상관(장여옥, 2015) 또는 병적몰입, 통제상실, 강박증상 및 생활장애와 같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정적 상관(이주연, 장성예, 2014)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는 3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인 것과 같이 긍정적 양육태도는 덜 보이고, 거부적인 것과 같이 부정적 양육태도는 더 많이 보였다는 연구결과(김지혜, 2013)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이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머니의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몰입은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거나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등 바람직한 양육을 하는데 위험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더구나,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을수

록 유아의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주의집중 문제와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현은자, 박은미, 조메리명희, 김태영, 2013)에 기초할 때,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중재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센터 등에서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어머니에게 제공하고,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어머니가 자신의 스마트폰의 사용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스마트폰의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양육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영유아가 더 이른 시기에 스마트폰에 노출되고 스마트폰 사용시간 또한 긴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림, 2013). 따라서, 부모교육 현장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지도에 대해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하위요인 들인 현저성, 기분조절, 내성, 금단 및 갈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현저성, 기분조절, 내성, 금단 및 갈등과 같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어머니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및 부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본 선행 연구를 발견하기가 어려우므로, 본 연구결과를 선행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울과 내성, 금단 및 일상생활장애 등과 같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간의 관련성(안주아, 2016; 최희정, 유장학, 2016)과 내성, 금단 및 일상생활장애 등과 같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이주연, 장성예, 2014; 장여옥, 2015)을 밝힌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하위요인들이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함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부모역할이 익숙하지 않고 자녀양육이 부담스러워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 쉬울 것이며, 어머니들은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 스마트폰에 점차 몰입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는 자녀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거나 자녀에게 화를 내고 거부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고,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현저성, 기분조절, 내성, 금단 및 갈등과 같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보다 높았으며, 현저성, 기분조절, 내성, 금단, 갈등 및 재발과 같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높을수록 거부-방임 양육행동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거부-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을 야기함을 밝혔으며, 이 때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저성, 기분조절, 내성, 금단 및 갈등과 같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매개로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결과로, 어머니는 긍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 성향을 높이거나 부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킴을 발견하여, 어머니의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중재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우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부모교육이나 상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보고에만 의존하여 모든 연구변인들을 측정함으로써 다양한 보고자에 의한 평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응답자의 주관이나 바람직성이 개입될 수 있으며, 변인들 간의 관련성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고자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TV, 컴퓨터, 게임기, 아이패드, 스마트폰 등 광범위한 미디어 중 스마트폰에만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다른 미디어기기에 비해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과 더불어 다양한 미디어기기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 미디어의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거부와 방임적 양육행동을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분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거부적 양육행동과 방임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및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우울 및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이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야기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을 보다 확장하여, 우울과 거부-방임 양육행동을 매개하는 기제로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거부-방임 양육행동에 대한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며 어머니가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정도와 그 영향에 대해 통찰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정신건강이 자녀양육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함으로써,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적 접근과 사회적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 권호인, 권정혜 (2012). 우울증의 인지적 취약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975-1001.
- 김경남 (200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인터넷 쇼핑 중독 성향과의 관계: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순, 박은자, 전진아, 최지희, 박금령, 김소운 등 (2014). 한국여성의 우울증과 만성통증에 대한

- 심층분석(정책보고서 2014-53). 청주: 질병관리본부.
- 김명숙, 오현숙 (2015). 어머니의 기질과 우울 그리고 양육태도와 자녀 성격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513-530.
- 김병년 (2013). 대학생의 자기통제력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9, 49-81.
- 김영임 (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율리 (2007). 임신 및 산후 우울증. **정신신체의학**, 15(1), 22-28.
- 김정은 (2016). 부부갈등, 어머니의 분노 및 우울과 학대 및 방임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 (2013).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양육태도, 양육효능감과 양행동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미 (2014). 한국 성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인지취약모델과 상처모델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2), 233-261.
- 도현심, 신나나, 박보경, 김민정, 김혜인 (2014).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5(4), 179-198. doi:10.5723/kjcs.2014.35.4.179
- 박영희 (2017). 대학생의 우울, 자존감,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간호학회**, 23(1), 111-116. doi:10.4094/chmr.2017.23.1.111
- 박주희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아, 이경숙, 전연진 (2014).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1), 55-70.
- 변영순, 정은주 (1999). 성격유형과 우울정도에 따른 수면양상에 관한 연구. **Health & Nursing**, 11(1), 43-55.
- 서혜성, 김연하 (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결정요인: 사회 인구학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5(5), 1-14. doi:10.5723/kjcs.2014.35.5.1
- 신승철, 김만권, 윤관수, 김진학, 이명선, 문수재 등 (1991). 한국에서의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CES-D)의 사용: 표준화 및 요인구조에 대한 횡문화적 검토. **신경정신의학**, 30(4), 752-767.
- 안주아 (2016).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행태와 중독. **언론과학연구**, 16(4), 128-162. doi:1.14696/jcs.2016.12.16.4.128
- 양경미 (2016).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7(1), 113-123. doi:10/15207/jkcs.2016.7.1.113
- 윤혜미, 최문정 (2006). 어머니 우울과 부부갈등이 방임을 매개로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7, 21-44.

- 이용란 (2013). 어머니 우울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림 (2013. 11).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실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 자료, 서울.
- 이종환, 임종민, 손한백, 곽호완, 장문선 (2016). 행동중독 준거기반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425-443. doi:10.23884/kjcp.2016.05.28.2.425
- 이주연, 장성예 (2014).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4**(3), 61-79.
- 이충경, 박강규, 조맹제, 정은기, 김장규, 김선옥 (200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한국: 보건복지부.
- 장여옥 (2015).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이 양육효능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109-129. doi:10.14698/jkce.2015.11.2.109
- 정그린 (2016). 영유아기 자녀 어머니가 인식하는 가족기능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경, 김영희 (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8), 123-137.
- 조현주, 전태연, 채정호, 우영섭, 최정은, 기백석 등 (2007). 우울장애의 불안, 신체화, 분노 증상과 정서조절방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63-679.
- 최미경, 이영희 (2010). 중년성인의 우울과 무력감, 사회적지지 및 사회경제적 상태. **정신건강간호학회지**, **19**(2), 196-204.
- 최희정, 유장학 (2016). 여대생의 우울 및 스마트폰 의존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7**(1), 43-50.
- 현은자, 박은미, 조메리명희, 김태영 (2013). 어머니의 스마트폰중독 수준 및 우울 점수와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3**(5), 181-20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Griffiths, M. (2005). A 'components' model of addiction within a biopsychosocial framework. *Journal of Substance Use*, *10*(4), 191-197. doi:10.1080/14659890500114359
-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5), 561-592. doi:10.1016/s0272-7358(98)00100-7
- McCue Horowitz, S., Briggs-Gowan, M., Storfer-Isser, A., & Carter, A. S. (2007). Prevalence, correlates, and persistence of maternal depression. *Journal of Women's Health*, *16*(5), 678-691. doi:10.1089/jwh.2006.0185

- Misri, S., Kendrick, K., Oberlander, T. F., Norris, S., Tomfohr, L., Zhang, H., et al. (2010). Antenatal depression and anxiety affect postpartum parenting stresses: A longitudinal, prospective stud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5*(4), 222-228.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Shin, D. W., & Stein, M. A. (2008). Maternal depression predicts maternal use of corporal punishment in children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Yonsei Medical Journal, 49*(4), 573-580. doi:10.3349/ymj.2008.49.4.573
- Toda, M., Nishio, N., & Takeshita, T. (2015). Predictive factors for smartphone dependence: Relationship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ronotype, and depressive state of university students. *Ope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5*(12), 456-462. doi:10.4236/ojpm.2015.512051
- Tsang, A., Von Korff, M., Lee, S., Alonso, J., Karam, E., Angermeyer, M. C., et al. (2008). Common chronic pain condition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Gender and age differences and comorbidity with depression-anxiety disorders. *The Journal of Pain, 9*(10), 883-891. doi:10.1016/j.jpain.2008.05.005
- Wenar, C., & Kerig, P. (2011).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Fifth edition)*, 발달정신병리학 5판: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이춘재, 성현란, 송길연, 윤혜경, 김혜리, 박혜원, 정유경, 정윤경 옮김). 서울: 박학사(원판 2006).

논문투고: 17.06.15
수정원고접수: 17.09.19
최종게재결정: 17.09.29